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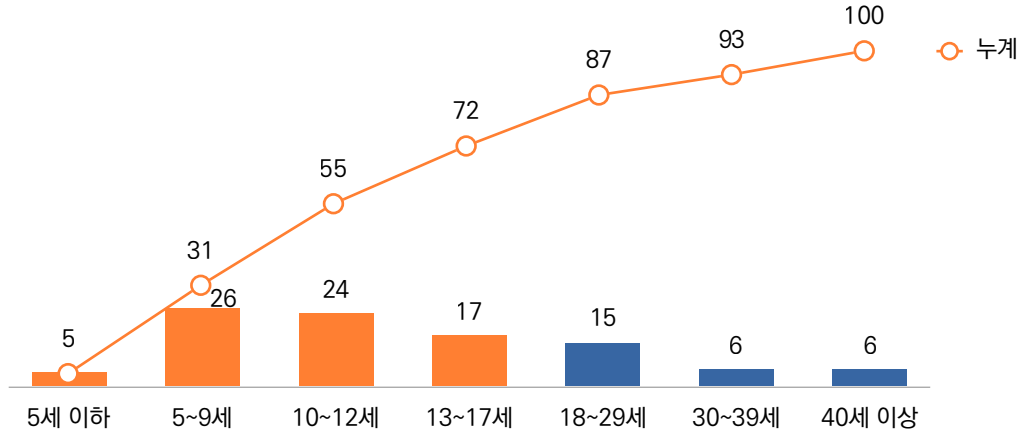


[미국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 실태]

미국 개신교인 10명 중 7명, 18세 이전에 신앙 가져!

-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, 그 영적 여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. 먼저 '신앙을 갖게 된 시기'를 물은 결과, 10세 전후 비율이 가장 높았고, 미국의 성인 기준 연령인 만 18세 전에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중 7명(72%)에 달했다.

[그림]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나이 (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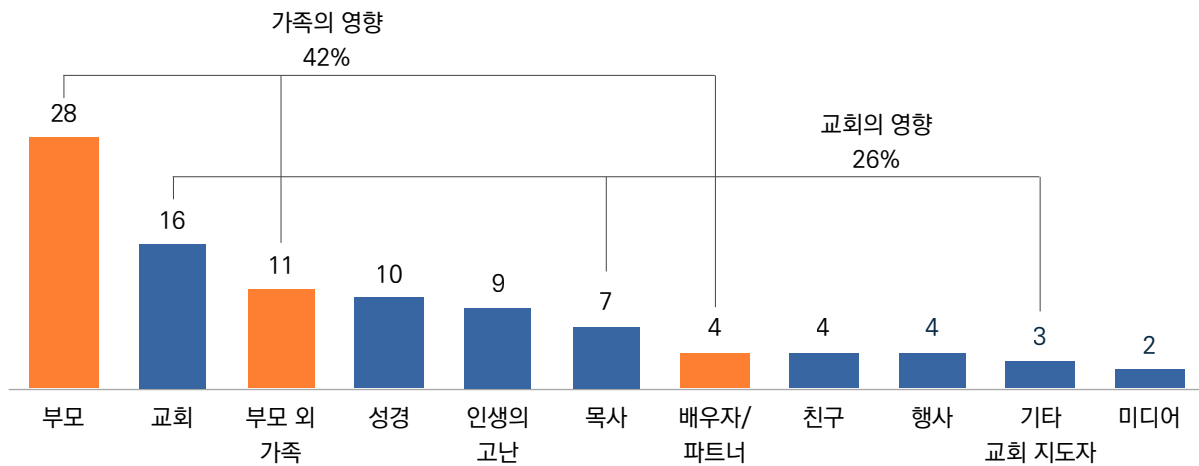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GREYMATTER RESERACH/Infinity Concepts, The Spiritual Journey : How Evangelicals Come to Faith, 2024.
 Note) 복음주의 개신교인(Evangelical Protestants): 남침례교, 오순절, 예수재림교, 성결운동 등의 교인을 지칭

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'교회'보다 '가족' 영향이 크게 높아!

- 그렇다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/것은 무엇일까? 자신이 신앙인이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/것으로 '부모(28%)'를 포함한 '가족의 영향(42%)'을 가장 많이 꼽았다.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주요 계기를 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.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.

[그림]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 (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, %)



※출처 : GREYMATTER RESERACH/Infinity Concepts, The Spiritual Journey : How Evangelicals Come to Faith, 2024.